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초점을 둔 상담사발달 및 핵심역량 연구고찰

조 은 숙*

권 혜 영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사발달과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를 고찰하고, 그 바탕 위에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상담사발달과 상담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상담사발달 연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상담사의 필수 기술과 역량에 초점을 두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경향은 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성과중심 교육 관점이 대두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AAMFT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이 2004년에 개발되었고 이후 영국, 대만 등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 국가직무표준(NCS)에 ‘부부 가족상담’ 능력 단위가 개발되어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 과정 없이 진행된 한계를 지닌다.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은 상담사 교육·훈련이나 평가 등에 활용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가족상담사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학회 차원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측정 도구의 개발, 교육과정의 쇄신 등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상담사발달, 가족상담사발달, 상담사 핵심역량,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 교신저자 : 조은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 02) 2287- 7782 / E-mail : grace123@smu.ac.kr

I. 서 론

본 연구는 가족상담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가족상담사 교육 및 훈련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한국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사 교육 훈련 영역의 주요 연구주제인 상담사발달 연구와 핵심역량 연구를 고찰한 후 이에 기반하여 핵심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상담사발달은 인간의 생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상담사가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최한나, 2005)이며, 상담사발달 수준은 상담사의 발달과정을 연속선상에서 볼 때, 상담사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위치(심홍섭, 1998)를 말한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은 주로 직업훈련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말하는 것(박소영, 신윤선, 이유경, 민자원, 김진희, 2021)으로, 우리나라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도 넓은 범위에서 핵심역량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상담사의 핵심역량이란 상담사의 전문적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 능력을 일컫는 것이다. 상담사 핵심역량 연구는 상담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상담사발달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상담사발달 연구는 상담사 교육과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상담사발달의 하위요인이나 발달 단계를 나누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Fleming, 1953). 미국의 상담사발달 연구의 경향은 상담사의 심리 내적인 영역에서 점차 상담 과정을 구조화하고 평가하는 보다 구체적인 직무능력

과 관련된 하위영역에 초점을 두게 된다. 1990년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담사발달 연구(김계현, 1992; 심홍섭, 1998; 이수현, 김봉환, 2009; 정문주, 조한익, 2016; 최한나, 2005)들은 초기 연구자들의 상담사발달 단계별 모델(Hogan, 1964;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Skovholt & Ronnestad, 1992; Stoltenberg & Delworth, 1987; Wiley & Ray, 1986)을 수용하면서, 상담사발달이라는 개념 속에 상담사의 내적 성숙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담기술과 윤리적 태도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상담사발달의 최근 연구 결과들은 핵심역량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미국의 상담사 핵심역량 연구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내담자들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와 실제 받는 서비스 사이의 “질적 격차”(quality chasm)를 타개해야 한다는 비판적 보고서들에 자극받은 전문학회들의 대응에서 시작되었다(Nelson et al., 2007). 이는 당시 미국 사회의 성과기반교육(outcome based education)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요구와 맞물리면서 상담사들의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상당한 도전으로 작용하였고,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그리고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집단이 이러한 흐름에 반응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출판된 미국심리학회(APA, 2006)의 심리사 핵심역량 연구 보고서가 그 예이며, 한국의 경우 NCS를 통해 심리상담 분야의 역량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전문학회들의 공론화 작업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미국 경우와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가족상담 분야로 관심을 돌리면, 가족상담 분야에서 별도로 이루어진 상담사발달 연구는

많지 않다. 상담사발달 영역에서 가족상담 분야의 별도 연구가 저조한 것과는 달리, 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에 있어서는 AAMFT가 빠른 대응을 하여 2004년에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이 개발되었다(AAMFT, 2004). 그 개발 연구에는 가족상담사 필수 역량이나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들(Hanna, 1997; Nelson & Johnson, 1999; Piercy, Laird, & Mohammed, 1983; Storm, York, Vincent, Mc Dowell, & Lewis, 1997)이 기반이 되었다. AAMFT에서 개발된 가족상담사의 핵심역량은 COAMFTE(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Education)를 통한 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 평가에도 반영되었다(Gehart, 2011). AAMFT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영국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연구(Stratton, Reibstein, Lask, Singh, & Asen, 2011), 대만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Chao & Lou, 2018)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부부가족상담’ 직무능력 목록이 국가직무표준(NCS) 2021년판 안에 포함(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되어 있으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연구나 전문학회 차원의 관심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 공동체에 의해 합의된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은 상담사 교육과 훈련, 평가의 표준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없다는 것은 가족상담 영역에서 상담사 교육과 훈련, 평가의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므로, 가족상담 전문가 교육 훈련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NCS 안에 ‘부부가족상담’ 직무능력 단위가 포함되기는 했으나 그것이 전문가집단의 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사발달과 핵심역량 연구가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가족상담 분야의

핵심역량 연구의 현주소를 살펴본 후, 가족상담 핵심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상담사발달에서 핵심역량 연구까지

1) 상담사발달 연구

상담사발달 연구는 상담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상담사발달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과 한국의 주요 연구를 정리한 표 1을 보면, 상담사발달 연구 초기에는 그 내용이 상담사의 학습경험, 자율성, 동기 등과 같은 상담사의 심리 내적인 성숙에 치중되어 있다가 점차 상담 개입에 필요한 다차원적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상담사발달 연구는 점차 상담사의 핵심적인 직무 역량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러한 최근 연구들은 상담사 핵심역량 관련 논의에 기반 지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권혜영(2022)은 개인 상담사발달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1 참고). 상담사발달 연구의 초기 형태인 Fleming(1953)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에서 상담사의 학습경험 수준을 중요시하였다면, Hogan(1964)은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서적인 측면인 상담사의 자신감, 자율성, 동기 등을 주요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Loganbill 등(1982)의 연구에서는 Hogan(1964)의 연구에서 제시된 심리 내적인 개념 이외에도 정서 자각, 상담목표, 상담기술, 전문적 윤리, 개인차 등

〈표 1〉 상담사발달 관련 주요 연구

연구자	차원		발달 수준	
Fleming (1953)	- 학습경험 수준		1. 모방 학습 2. 교정 학습 3. 창의적 학습	
Hogan (1964)	- 자신감 - 자율성 - 동기		1. 의존적 수준 2. 의존성과 자율성의 갈등 3. 조건적 의존 수준 4. 대가 상담사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	- 정서 자각 - 정체성 - 자율성 - 동기	- 상담목표 - 상담기술 - 전문적 윤리 - 개인차 존중	1. 정체기 2. 혼란기 3. 통합기	
Wiley & Ray (1986)	- 자신감 - 정체감 - 영향력 통찰	- 이론적 모형 선호도 - 상담 한계 자각	1. 의존단계 2. 의존과 자율성의 갈등 단계 3. 조건적 의존단계 4. 대가 상담사 단계	
Stoltenberg & Delworth (1987)	- 개인적 차이 - 대인관계 평가 - 이론적 배경 - 내담자 개념화	- 치료목표와 계획 - 개입기술 - 평가기술 - 전문가 윤리	1. 의존단계 2. 의존과 자율성의 갈등 단계 3. 조건적 의존단계 4. 대가 상담사 단계	
Skovholt & Rønnestad (1992)	- 핵심과제 - 우세 정서 - 개념적 기초 - 학습 과정	- 개념 정의와 소요 시간 - 역할과 상담 스타일 - 효과성과 만족도 - 영향의 주된 원천	1. 인습적 단계 2. 이행 단계 3. 대가 모방단계 4. 조건적 자율단계	5. 탐구 단계 6. 통합 단계 7. 개별화 단계 8. 개별성 보존
김계현 (1992)	- 상담 대화기술 - 알아차림 - 진단 및 처치	- 전문성 - 평가(교육내용)	1. 실습 준비기 2. 실습 수련기(초·중·고급) 3. 자기 수련기	
심홍섭 (1998)	- 상담 대화기술 - 사례이해 - 알아차리기	- 상담계획 - 인간적·윤리적 태도	1. 초보 상담사 2. 중간수준 상담사 3. 숙련 상담사	
이수현, 김봉환 (2009)	• 과정기술	- 상담계획 - 상담목표 - 개입전략 - 우선순위 접근 - 사례 개념화	1. 초급 상담사 2. 중급 상담사 3. 고급 상담사	
	• 개입기술	- 공감기술 - 대화기술 - 감정반영기술 - 회기관리 기술		

〈표 1〉 상담사발달 관련 주요 연구

(계속)

연구자	차원	발달 수준
	- 성장과 가능성 - 윤리 - 정체감 - 상담 실제 활용	
정문주, 조한익 (2016)	- 상담 대화기술 - 사례이해 - 알아차리기	- 상담계획 - 인간적·윤리적 태도
김동민, 김영신 (2019)	- 치료 중재기술 - 역전이 관리	1. 실습 준비기 2. 실습 수련기(초·중·고급) 3. 자기 수련기
	- 치료관계 - 윤리적 대처 - 협업	

* 권혜영(2022)이 개인 상담사발달 연구를 정리한 자료임.

상담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추가하였으며, Stoltenberg와 Delworth(1987)는 이러한 역량을 더욱 구체화하여 대인관계 평가, 내담자 개념화, 이론적 접근, 개입기술, 평가기술 등 상담 과정을 구조화하고 평가하는 보다 세부적인 기술에 집중하였다.

한국에서 상담사발달 연구의 최초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김계현(1992)의 연구는 Stoltenberg와 Delworth(1987), Skovholt와 Rønnestad(1992) 등의 상담사발달 개념을 이어받아 상담사발달 단계모형에서 이와 같은 기술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내용은 상담 대화기술, 정서적 알아차림, 진단과 처치, 전문성, 평가 등이었다.

김계현(1992)의 연구를 토대로 심홍섭(1998)은 한국 상담사를 위한 발달수준 평가척도(KCLQ: 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를 개발하면서 상담사발달의 개념을 연구하였다. 김계현(1992) 연구에서의 ‘진단과 처치’는 심홍섭(1998) 연구에서 ‘사례이해’와 ‘상담계획’으로, ‘평가’는 ‘사례이해’에 일부 포함되면서, KCLQ의 영역은 상담 대화기술,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인간적·윤리적 태도 등

으로 구성되었다. KCLQ는 현재까지도 국내 연구에서 상담사발달을 측정할 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척도이다.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 분야의 연구들은 상담사발달이라는 포괄적 개념보다는 상담사의 기술(Eriksen & McAuliffe, 2003; Hill, 2001, 2009; Urbani et al., 2002)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역량 중심의 상담사발달로 연구의 초점이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에서는 상담사의 기술 발달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이 중시되었는데(Perosa & Perosa, 2010), 이는 상담사의 교육과 훈련이 점차 구체적인 역량 개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훈련생들의 진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상담사발달에 대한 연구가 점차 세분화되면서 개인심리상담 영역에서 시작된 상담사발달 연구는 아동상담사, 가족상담사, 예술치료사 등의 발달 연구로 확장되었다(권혜영, 조은숙, 2020).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김동민과 김영신(2019)은 예술치료사 발달평가척도(CAT-DAS)를 개발하였다. 예술치료사 발

달평가척도는 치료 중재기술, 역전이 관리, 치료관계, 윤리적 대처, 협업 등을 하위영역으로 두며, 예술치료라는 영역에서의 상담사발달 측정을 시도하였다. 가족상담 분야에서는 가족상담사발달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가족상담사의 ‘정체성(노미화, 최연실, 2018; Everett, 1981; Friedman & Kaslow, 1986; Kral & Hines, 1999)’과 ‘역전이(엄영숙, 정연득, 2021; Gehlert, Pinke, & Segal, 2014)’ 분야가 부분적으로 연구되어왔다. 노미화와 최연실(2018)에 의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발달 연구는 가족상담사가 개인, 가족, 대인관계, 직업 등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켜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엄영숙과 정연득(2021)은 가족상담사의 역전이 경험에 초점을 두고 상담사발달을 조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담사발달 연구는 개인상담 영역에서의 연구를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예술치료나 가족치료 등의 분야에서는 개인상담 영역에서의 상담사발달 연구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발달 측면에 초점을 둔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 상담사 핵심역량 연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를 보면 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은 정신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가 있다(Nelson et al., 2007; Stratton et al., 2011). 정부의 이런 노력은 실제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잠재적 수요자들의 기대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비판적 평가보고서들이 나오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Nelson et al., 2007).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잘 해낼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누구이며, 그 서비스는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담사 전문직 직무능력 표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Stratton et al., 2011).

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정신건강 분야에 관여된 전문학회들은 활발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미국심리학회는 2006년에 발간된 ‘심리 전문직의 역량 사정을 위한 위원회 최종 보고서’(APA, 2006)를 통해 심리 전문직의 핵심역량 사정의 필요성과 핵심역량의 하위영역 및 세부 사항 등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국심리학회는 이후 몇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쳐 핵심역량을 수정해오고 있으며 현재 활용되는 심리사의 핵심역량(APA, 2012)은 6개 범주(전문적 능력, 관계적 능력, 연구 능력, 적용 능력, 교육 능력, 유관 체계에 대한 능력 등), 16개 하위영역에 걸쳐 개발되어 있다. 미국상담학회는 미국심리학회와 달리 다양한 상담 양식에 필요한 상담사 핵심역량을 개별적으로 개발해왔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것을 보면, 11개 상담 양식에서의 핵심역량 리스트가 개발되어 있다(예: ‘다문화 직업상담을 위한 핵심역량’)(ACA, 2009).

영국의 경우는 정부 보건당국의 주도하에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성과 및 효과 연구 센터(CORE: Centre for Outcomes Research and Effectiveness) 연구팀이 일련의 핵심역량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인지행동치료, 정신역동 치료, 체계적 치료(가족치료), 인본주의 및 통합적 치료 등의 핵심역량이 개발되었다(Stratton et al., 2011). 이들은 다양한 치료양식 중 정신건강 서비스에 효과적인 양식을 찾고자 기존의 치료 성과 연구나 효과적인 치료 매뉴얼 등을 핵심역량 개발에 활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 연구자 차원의 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상담 영역별 역량 모델(예: 청소년상담사 역량)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유현실, 2009; 이영란, 2019; 정환경, 2015; 조수연, 양미진, 2013). 김인규는 개인상담 영역에서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한 연구자로, NCS를 활용한 심리상담 자격 표준화 연구(김인규, 김승완, 2020),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김인규, 최현아, 2017),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분석(김인규, 조남정, 2016), 학부 상담 교육 인증기준 개발(김인규, 조남정, 2016) 등의 연구를 통해 핵심역량을 상담사 교육 및 자격 검증까지 연결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 혹은 전문학회의 합의 과정을 거친 규모 있는 형태의 핵심역량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

1) 가족상담사 역량 및 기술 연구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 오던 가족상담 분야의 교육·훈련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와 연속선상에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보면 ‘가족상담사의 발달모델’과 같은 포괄적인 상담사 발달 연구는 가족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지식이나 기술 차원에서 개인상담과 차별적인 체계론적 상담의 유능성을 교육·훈련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Perosa & Perosa, 2010).

권혜영(2022)은 AAMFT(2004)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개발 이전에 미국에서 이루어진 교육, 훈련, 평가 등과 관련된 주요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2 참고). Piercy 등(1983)이 개발한 ‘가족상담사의 개입기술 평가척도’는 이 분야 초기의 대표적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고전적 가족상담 모델에 준하여 가족상담사들의 개입 능력을 사정할 수 있도록 하위 영역을 편성하였고, 이어 사정 도구를 개발하여 수련생들의 진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Storm 등(1997)은 가족상담사 훈련을 목적으로 가족상담에서 갖추어야 할 공통된 기술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개념, 지각, 구조화, 치료관계, 개입, 일반 사례관리, 전문성 개발 등이었다. Hanna(1997) 또한 가족상담사 훈련을 목적으로 Storm 등(1997)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보다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채점기준표를 개발하였는데, 그 척도는 ‘전문적 책임’ ‘이론적·실천적 지식’이라는 두 가지 영역과 20개의 하위능력으로 구성되었다. Nelson과 Johnson(1999)은 기초 가족상담 기술 프로젝트(Figley & Nelson, 1989, 1990; Nelson & Figley, 1990; Nelson, Heilbrun, & Figley, 1993)의 결과를 토대로 가족상담사 기초기술 평가 척도(BSED)를 개발하였다. BSED는 개념, 지각, 실행, 전문 및 평가기술 등의 다섯 가지 핵심 차원과 그에 따른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된다. Nelson은 이후 AAMFT(2004)의 핵심역량 개발팀에 합류하면서 그의 이러한 개념들이 핵심역량에 반영되게 된다. 개인상담 분야에 속한 학자인 Kung(2000)의 경우는 우울증 내담자의 개인상담에서 상담사의 가족 체계론적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가족상담사의 중요한 역량으로 상호작용의 과정을 추적하는 역량과 맥락을 고려하는 역량에 주목하였다.

〈표 2〉 가족상담사의 핵심역량 개발의 기반이 된 선행연구

연구자	핵심역량
Piercy et al. (1983)	- 구조화 기술 (Structural Skills) - 관계 기술 (Relationship Skills) - 다세대적 범주 (Historical Category) - 구조적/과정 범주 (Structural/Process Category) - 경험적 범주 (Experiential Category)
Storm et al. (1997)	- 일반 사례관리 (General Case Management) - 치료관계 (Therapeutic Relationship) - 지각 역량 (Perceptual Competency) - 개념 역량 (Conceptual Competency) - 구조화 역량 (Structuring Competency) - 개입 역량 (Intervention Competency) - 전문성 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 전문적 책임 (Professional Responsibility) - 개인/집단 슈퍼비전 (Individual/Group Supervision) - 문서작업의 완성도 (Completion of Paperwork) - 전문적 행동 (Professional Behavior) - 윤리적 행동 (Ethical Behavior)
Hanna (1997)	- 이론적·실천적 지식 (Theoretical and Procedural Knowledge) - 체계론적 지식 (Knowledge of Systems) - 진단 및 사례 개념화 (Diagnostic and Case Conceptualization) - 접수 면접 (Initiates Intakes) - 경청기술 (Listening Skills) - 부부가족 이론과 기술 (Marriage/Family Theories and Techniques) - 상담 관계 수립 (Establishing the Counseling Relationship) - 커플·부부의 현실이해 (Understanding Couple & Family Reality) - 치료사의 판단 (Therapist Judgment) -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 상담 기관의 정책과 절차 (Clinic Policy and Procedures) - 치료기술에 대한 자기평가 (Self Evaluation of Therapy Skills) - 개인적 성장 (Personal Growth) - 치료 스타일 개발 (Therapy Style Development) - 동료와의 상호작용 (Interactions with Colleagues) - 개인 문제 작업 의지 (Willingness to Work on Personal Issues)

〈표 2〉 가족상담사의 핵심역량 개발의 기반이 된 선행연구

(계속)

연구자	핵심역량
Nelson & Johnson (1999)	- 개념적 기술 (Conceptual Skills)
	- 지각 기술 (Perceptual Skills)
	- 실행 기술 (Executive Skills)
	- 전문 기술 (Professional Skills)
	- 평가 기술 (Evaluative Skills)
Kung (2000)	- 상호작용 과정 추적 (Interactional Sequences)
	- 맥락 고려 (Consideration of Context)

* 권혜영(2022)이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개발의 기반이 된 연구를 정리한 자료임.

2)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

가족상담 분야의 핵심역량 연구도 개인상담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공적인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Nelson et al., 2007). ‘내용 중심교육’에서 ‘성과기반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역량 개발에 미친 영향도 개인상담 분야와 동일하다. 2004년에 이루어진 AAMFT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개발은 정신건강 분야의 여타 상담관련 학회들의 대응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핵심역량이 개발된 후, 가족상담 분야 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인준을 맡은 AAMFT의 부부가족치료¹⁾ 교육인증위원회(COAMFTE)의 인준기준 11판(2005년)에 핵심역량이 포함되면서, 핵심역량은 가족상담사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Gehart, 2011).

Stratton 등(2011)은 이와 같은 가족상담 분

야의 신속한 대응이 당시 정신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가족상담 전문가들이 가진 위기의식과 관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문학회의 이러한 대응은 정신건강 분야 전문직군 중에서 가족상담의 전문성과 유용성을 돋보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를 도출하여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어떤 연구모델을 가지고 핵심역량을 개발하는가부터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Nelson et al., 2007 참고)과 영국(Stratton et al., 2011 참고)에서의 예를 통해 그 과정을 잠시 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AAMFT는 2003년에 가족상담 교육·훈련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시켜 핵심역량 연구를 시작한다. 관련 선행연구와 타 전문학회의 자료 등 많은 자료를 활용(활용한 자료목록은 Nelson et al., 2007 참고)하여 개발팀이 추출한 최초의 핵심역량 리스트는 교육과 슈퍼비전 경험이 있는 50명의 부부가족치료사(MFTs)의 피드백을 거쳐 수정 및 추가되면서 특히 다문화적 역량에 대한 의견이 상당 부분 보완되었다. 이후 전체 학회원들의 피드백을 수렴한 후 핵심역량

1) 본 논문에서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라는 용어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AAMFT나 AFT 등은 공식용어로 ‘치료(therapy)’를 사용하므로 그 경우는 ‘치료’라는 용어를 쓰되, 그 외의 표현에서는 논문 전체에서 가족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초안을 최종적으로 19개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학회나 협회, 기관 등에 보내어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AAMFT는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으로 6개 영역 128개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 이 6개 영역은 치료 시작, 임상 평가 및 진단, 치료계획 및 사례관리, 치료개입이라는 치료의 순서에 따른 영역과 추가적인 두 영역으로 법적 문제와 윤리 및 규정,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각 영역은 개념, 지식, 실행, 평가, 전문성 등의 차원으로 나누어져 기술되었다.

이후 AAMFT는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가족치료사들의 핵심역량(AAMFT, 2018)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이전 2004년에 개발된 CC를 참고하되, 의료체계 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일반 체계적 역량, 생물·심리·사회·영적 체계와 관련된 역량, 협업, 리더십, 윤리 및 다양성과 관련된 역량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LGBT를 위한 치료사 핵심역량 등 다양한 핵심역량이 부문별로 개발되고 있다.

핵심역량 개발은 곧바로 이것을 교육과 훈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되

〈표 3〉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

연구자	핵심역량 범주
AAMFT (2004)	- 치료 시작 (Admission to Treatment) - 임상 평가 및 진단 (Clinical Assessment and Diagnosis) - 치료계획 및 사례관리 (Treatment Planning & Case Management) - 치료적 개입 (Therapeutic Interventions) - 법적 문제와 윤리 표준 (Legal Issues, Ethics, and Standards) -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Research and Program Evaluation)
CORE,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0)	- 일반 치료적 역량 (Generic Therapeutic Competencies) - 기본 체계적 역량 (Basic Systemic Competencies) - 특정 체계적 기술 (Specific Systemic Techniques) - 특정 문제별 역량 (Problem-Specific Competencies) - 메타 역량 (Meta-Competencies)
Chao & Lou (2018)	- 치료 시작 (Admission to Treatment) - 평가 및 진단 (Assessment and Diagnosis) - 치료적 개입 (Therapeutic Interventions) -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NCS(직업능력개발원, 2021)	- 부부가족 상담 관계 형성하기 - 부부가족 체계 사정하기 - 부부가족 상담목표와 전략 수립하기 - 부부가족 상담 진행하기 - 부부가족 상담 종결하기 - 부부가족 상담 과정 평가하기

* 권혜영(2022)이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를 정리한 자료임.

었다. AAMFT의 핵심역량 개발팀은 개발 직후인 2004년에 가족상담 분야 교육자 회의(Educators' Summit)를 개최하여 13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주입중심(input driven), 내용 중심(content centered)의 교육이 성과 중심(outcome centered)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상담 분야 전문학회들이 이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이 회의는 이후, 핵심역량의 개념과 이것을 교육에 적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생경함과 부담감을 표하던 참석자들의 관점이 수용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Nelson et al., 2007). 또한 핵심역량 개발의 '베타 테스트 그룹'에 참여한 미국 내 8개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이 핵심역량을 적용한 교육을 실시해보고 참여한 교수 및 수련감독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였다. 핵심역량을 교육, 훈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량을 교육과정에서 수시로 평가해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정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는 가족상담사의 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Perosa & Perosa, 2010). 또한 지필식 지식 시험이 아닌 임상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방법(Rushforth, 2007)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Perosa와 Perosa(2010)가 개발한 지도감독자와 수련생을 위한 가족치료 기술평가 양식(FTSSRF, FTSORF) 등이 OSCE의 예가 되는데, FTSORF는 수련생이 자신의 상담 회기 녹화 파일에서 하나 이상의 회기를 관찰한 후 가족치료 기술 및 자기 효능감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있다.

영국의 핵심역량 연구는 영국 보건국(Dept. of Health UK)의 주도하에 런던대학의 CORE

센터 연구팀이 주축이 되어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CORE 연구팀은 인지행동, 정신역동, 체계적 치료, 인본주의 및 통합적 치료 등 치료의 양식별로 현재까지 11개 치료양식에 대한 핵심역량 개발을 해오고 있다(CORE 홈페이지 www.ucl.ac.uk/clinical-psychology/CORE 참조).

체계적 치료(가족상담) 양식의 핵심역량 개발 순서는 다음과 같다(Stratton et al., 2011). 먼저 CORE 연구팀이 효과성이 입증된 가족상담 분야 치료모델들의 매뉴얼과 주요 교과서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가족상담에 필요한 다수의 역량을 추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역량에 대하여 성과연구 경험, 치료 매뉴얼 개발 경험, 슈퍼비전과 훈련자 경험이 있는 12명의 임상가들로 구성된 전문 자문집단의 검토를 거쳤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잠재적 내담자 그룹의 피드백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가족상담사 역량 구조(CFW: Competence Frameworks)는 모든 치료양식에 공통되는 '일반 치료적 역량'과 관계적 접근방식과 관련된 '기본 체계적 역량', '특정 체계 기술 역량', '문제별로 필요한 역량', '메타 역량' 등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CORE, 2010). CORE 연구팀의 핵심역량 개발에서는 '성과연구'를 통해 효능이 뒷받침된 능력 단위를 포함시킨다는 기준이 작용한다는 점이 미국의 예와 차이가 난다. 또한 동일 연구팀이 여러 치료양식에 대한 역량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치료양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범주를 달리하여 제시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CORE, 2010). 또한 CORE 팀은 영국의 국가 직무표준(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내의 상담사 직군 직무역량개발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된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은 NOS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영국 내 가족상담 분야의 주요 학회인 가족 치료 및 체계적 치료 협회(AFT: Association for Family Therapy and Systemic Practice)는 현재 상담사 수련표준을 책자('Blue Book')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급별 상담사가 도달해야 할 역량('Competency Benchmarks')이 명시되어 있다(AFT 홈페이지 <https://www.aft.org.uk/page/routestoqualification> 참고). AFT는 CORE의 핵심역량 연구 이전부터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CORE를 통해 개발된 가족상담사의 역량구조(CFW)나 NOS의 역량이 해당 전문직 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AFT는 보다 전문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어(Stratton et al., 2011),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도출에서 국가적 차원의 역할과 전문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한편, 아시아권인 대만에서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Chao와 Lou(2018)의 연구가 그것이다. 연구자들은 AAMFT(2004)의 128개 핵심역량 리스트와 10명의 대만 가족상담 전문가들의 면접 자료를 토대로 최초의 역량 리스트를 개발한 후, 30명의 가족상담사들에게 델파이조사를 통해 문항을 다듬고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치료 시작, 평가 및 진단, 치료개입, 사례관리 등 네 가지 영역, 42문항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다. 대만 가족상담 종사자 상당수가 심리치료사이거나 정신과 의사이므로, 별도의 '윤리적 능력' 범주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삭제하였고,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영역의 문항도 삭제하여, 현장 치료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역량만으로 리스트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대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3가지 핵심역량은 오히려 추가하였다.

Chao와 Lou(2018)의 연구는 대만의 여러 학자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보고하고 있어, 향후 이 연구가 전문학회 차원의 핵심역량 고시로 이어질지 주목해 볼 만 하다.

한국의 경우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일천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NCS(한국산업인력공단, 2021)의 한 능력단위로 부부가족상담이 삽입된 것이 유일한 진전이다. NCS에서는 '부부가족상담'을 사회복지·종교(대분류) 내, 상담(중분류) 내, 심리상담(세분류) 내 21개 능력 단위 중 하나로 편성한 후, '부부가족 상담관계 형성하기', '부부가족 체계 사정하기', '부부가족 상담목표와 전략 수립하기', '부부가족 상담목표와 전략 수립하기', '부부가족 상담 진행하기', '부부가족 상담 종결하기', '부부가족 상담과정 평가하기' 등 6개의 능력 범주를 편성하였다. 또한 범주별로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능력을 기술해놓고 있어, 대체적으로 AAMFT의 핵심역량과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역량들은 '상담 ISC(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그 개발과정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없고, 전문학회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발과정 등으로 인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한 상황은 개인상담 영역에서 다양한 상담 양식에 따른 역량 모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김인규, 김승완, 2020; 유현실, 2009; 이영란, 2019; 정환경, 2015; 조수연, 양미진, 2013)과 대비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한국, 대만지역에서

가족상담사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연구나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들 핵심역량 연구는 거의 예외 없이 체계론적 관점에 기반한 가족치료의 초기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가족상담 분야는 초기 체계론적 관점에 더하여 사회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 관점, 정신역동이나 인지행동과 같은 개인치료 이론을 가족치료에 활용하는 경향 등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이 혼재되어 있다(김용태, 2009; 이선헌, 2021). 향후 한국에서 이루어질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체계론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는 AAMFT(2004)의 핵심역량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가족상담의 최신 경향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3.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의 필요성

상담사발달과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국, 영국 등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가 정신보건분야의 서비스의 질적 관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작되었으며, 이 움직임에 전문학회 및 연구자가 적극적 형태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가적 사업인 NCS의 수많은 직무분야 중 하나의 능력단위로 부가가족상담이 다루어진 것 이외에는 한국가족상담사의 핵심역량이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문화적 상황적 맥락에서 미국 등의 핵심역량과 다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상담사발달과는 별도의 가족상담사 발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가족상담 교육훈련 영역에서 개인상담과 차별적인 체계론적 상담의 유능성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이를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Perosa & Perosa, 2010), 그것이 AAMFT의 핵심역량 연구의 기반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우, 가족상담 교육훈련 분야의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연구가 핵심역량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에 대한 가족상담 교육자, 연구자, 임상가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상담사 핵심역량은 가족상담사의 교육과 훈련, 평가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AAMFT는 핵심역량을 개발한 후 그것을 대학원 프로그램 인준의 기준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는 이 핵심역량을 기르기에 적합하게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인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가족상담사를 위한 인턴십이나 워크샵에서 훈련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훈련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핵심역량은 훈련자(슈퍼바이저)나 수련생(슈퍼바이저)이 훈련의 방향을 점검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슈퍼비전 회기를 계획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줄 수 있다. 더불어 핵심역량 평가척도 등을 활용하면 슈퍼비전 중간평가나 종결 시 수련생(슈퍼바이저)의 진보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핵심역량 리스트는 가족상담 자격 검증을 위한 평가 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역량 개념을 가족상담사 교육·훈련에 적용하게 될 경우, 교육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Gehart, 2011). 또한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

면서 학생들의 진보를 점검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한다(Nelson et al., 2007). 가족상담교육을 핵심역량과 성과중심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미국, 영국 등의 가족상담 분야 선진국들의 예를 볼 때 시도해보아야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전문학회 차원의 가족상담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교육, 훈련의 기준으로 삼는 작업은 가족상담 분야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속하게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COAMFTE의 교육과정 인준기준에 포함시킨 AAMFT의 과감한 노력이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로서의 가족치료사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분석(Stratton et al., 2011)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AFT가 상담사뿐 아니라 슈퍼바이저의 교육 훈련을 위해 각각의 핵심역량을 문서화 하여 책자로 배포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인준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상담사 국가 자격화 논의가 활발해진 시점에 국가 차원의 NCS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NCS 안에 전문상담사 직군을 포함시키는 일, 또 그 안에 개별 상담양식(예: 부부가족상담사)의 직능명을 확보하는 일 자체가 중요했고(권수영, 이신행, 황진태, 손재규, 2016; 김인규, 김승완, 2020), 그 맥락에서 NCS 부부가족상담사 직무능력이 개발되었다. 현재 상담사 국가 자격화 논의가 한창이지만 국가자격 기준으로 마련되는 상담사의 직무능력 기준은 그 일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자격 규정이나 NCS에 가족상담사의 핵심역량의 기준을 맡기기보다는 전문학회 차원에서

가족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준한 교육, 훈련, 평가시스템을 갖추어간다면 이것이 가족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공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핵심역량은 공공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의 가족센터는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타전공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이는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사업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위협하고 있다(최연실 등, 2019). 핵심역량이 개발되면 이것을 공공 가족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공공 가족상담에서의 가족상담사 평가 기준, 보수교육의 표준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상담은 건강가정사업 내의 가족센터라는 전국적 인프라 속에서 저변을 확대해왔다. 이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가족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최연실 등, 2019)인데, 질적 향상의 표준화된 방향을 이 핵심역량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상담사발달과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음건강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전문가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와 어떤 훈련과 검정을 받은 전문가들이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가족상담 분야는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와 상담사의 교육, 훈련, 평가에 이 핵심역량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족상담 분야에 이러한 핵심역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교육자, 임상가들 모두가 관여되는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일단 관심을 한국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 분야의 향후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한국 가족상담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이 말하는 가족상담사의 역량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가족상담 분야는 초기 체계론적 관점에서 울트라모더니즘 사고까지 혼재되어 있고, 전문가집단 안에서조차 가족상담 개념이 유동적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가족상담과 관련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서구와 다른 부분이 있어, 이런 점이 고려된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학회가 주도하는 연구팀의 결성과 이를 통한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며, 전문가 대상 델파이연구,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 교육훈련 전문가집단의 피드백 과정, 그리고 전문학회 회원들의 피드백과정 등을 통한 한국가족상담사 핵심역량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역량을 활용한 상담사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핵심역량을 활용한 대학원 교육프로그램 내에서의 학생 평가 도구, 슈퍼비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 슈퍼바이저의 수행을 평가하는 도구, 자격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평가 도구 등을 개발하

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담사 교육과 훈련, 평가를 보다 표준화시킬 수 있으며, 교육자나 평가자의 주관이나 이론적 지향에 따른 편향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핵심역량을 가족상담사 대학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AMFT의 베타 그룹과 같이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적용해보는 시범적인 일이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런 교육적 변화가 학생들의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성과연구를 통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역량 개념을 도입한 가족상담 교과서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앞서 제안한 연구들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에 대해 향후 가족상담 전문가 공동체에 속한 많은 연구자와 임상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 권혜영 (2022). 슈퍼비전에서의 가족상담사 핵심역량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영, 조은숙 (2020). 국내 상담 슈퍼비전 연구의 동향: 이전 시기(1998년~2008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8(2), 135-160.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

- 심리학회지, 4(1), 19-53.
- 김동민, 김영신 (2019). 예술치료사 발달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음악치료 학회지*, 21(1), 21-44.
- 김용태 (2009). 가족상담: 가족치료의 개념적, 철학적 변화. *상담학연구*, 10(2), 1201-1215.
- 김인규, 김승완 (2020). 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활용한 심리상담자격 표준화 방안. *교육종합연구*, 18(3), 43-64.
-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 김인규, 조남정 (2016). 학부 상담교육 인증기준 개발. *상담학연구*, 17(6), 87-104.
- 김인규, 최현아 (2017). 한국형 상담교육 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8(3), 43-57.
- 노미화, 최연실 (2018).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발달 연구: 근거이론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3-29.
- 박소영, 신윤선, 이유경, 민자원, 김진희 (2021). 학생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2(4), 769-799.
- 심홍섭 (1998). 상담사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영숙, 정연득 (2021). 가족상담사의 역전이 경험 연구 - 근거이론 접근으로 -. *가족과 가족치료*, 29(2), 281-319.
- 유현실 (2009). 진로상담전문가의 역량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헌 (2021). 내러티브 슈퍼비전의 다양한 방법과 국내교육훈련 시사점. *가족과 가족치료*, 29(2), 221-251.
- 이수현, 김봉환 (2009). 슈퍼비전 기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17-437.
- 이영란 (2019). 다문화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사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한국상담학회지*, 17(6), 141-164.
- 정환경 (2015).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연, 양미진 (2013).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2), 59-75.
- 최연실, 조은숙, 박우철, 기쁘다, 안연주, 김진아 (2019). *서울가족사업 활성화 연구보고서 I: 서울지역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최한나 (2005). 상담사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상담학회지*, 6(3), 713-727.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Retrieved July 31, 2022, from <https://ncs.go.kr/index.do>
- AAMFT (2004). AAMFT Core competencies. Retrieved January 20, 2022, from <https://www.coamfte.org/COAMFTE/Accreditation/PMFTP.aspx>
- _____ (2018). Core Clinical Competencies for Family Therapists Working in Healthcare Settings. Retrieved July 31, 2022, from <https://blog.aamft.org/2018/03/core-clinical-competencies-for-family-therapists-working-in-healthcare-settings.html>
- ACA (2009). Multicultural career counseling competencies. Retrieved July 31, 2022, from <https://www.counseling.org/knowledge-center/competencies>
- APA (2006). Final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the assessment of competence in professional psychology. Retrieved July 31, 2022, from <https://www.apa.org/ed/resources/competence-report>
- _____ (2012). Revised competency benchmarks in professional psychology. Retrieved July 31, 2022, from <https://www.apa.org/ed/graduate/benchmarks-evaluation-system>
- Chao, W., & Lou, Y. C. (2018). Construction of core competencies for family therapists in Taiw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 265-286.

- CORE(Center for Outcomes Research and Effectiveness) (2010). Systemic psychological therapies competences framework. Retrieved July 31, 2022, from <https://www.ucl.ac.uk/pals/ucl-centre-outcomes-research-and-effectiveness>
- Eriksen, K., & McAulie, G. (2003). A measure of counselor competenc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2), 120-133.
- Everett, C. A. (1981). *Developmental stages and transitional crises in the supervision of family therapy students*.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San Diego, CA.
- Figley, C. E., & Nelson, T. S. (1989). Basic family therapy skills, I: Conceptualization and initial finding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4), 349-365.
- _____ (1990). Basic family therapy skills, II: Structural family therapy 1.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3), 225-239.
- Fleming, J. (1953). The role of supervision in psychiatric train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7(5), 157-169.
- Friedman, D., & Kaslow, N. (1986).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identity in psychotherapists: Six stages in the supervision process. *Clinical Supervisor*, 4(1-2), 29-49.
- Gehart, D. (2011). The core competencies and MFT education: practical aspects of transitioning to a learning-centered, outcome-based pedagog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7(3), 344-354.
- Gehlert, K. M., Pinke, J., & Segal, R. (2014). A Trainee's Guide to Conceptualizing Countertransference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Supervis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2(1), 7-16.
- Hanna, M. (1997). *The Scoring Rubric Counselor-Trainee Clinical Work (SRCTCW) Form*. Presented at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nvention, Pittsburgh, PA.
- Hill, C. (2001). *Helping skills: The empirical found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_____ (2009).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1(3), 139-141.
- Kral, R., & Hines, M. (1999). A survey study on developmental stages in achieving a competent sense of self as a family therapist. *The Family Journal*, 7(2), 102-111.
- Kung, W. W. (2000). The Rating Scale of Therapists' Systemic Responses in an Individual Treatment Context. *Family Process*, 39(2), 207-216.
- Loganbi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Nelson, T., & Figley, C. (1990). Basic family therapy skills, III: Brief and strategic schools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therapy*, 4(1), 49-62.
- Nelson, T., Heilbrun, G., & Figley, C. (1993). Basic skills in family therapy, IV: Transgenerational theories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3), 253-266.
- Nelson, T. S., & Johnson, L. (1999). The Basic Skills Evaluation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5(1), 15-30.
- Nelson, T. S., Chenail, R. J., Alexander, J. F., Crane, R., Johnson, S. M., & Schwallie, L. (2007). The development of the core competencies for the practice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4), 417-438.
- Perosa, L. M., & Perosa, S. L. (2010). Assessing competencies in couples and family therapy/counseling: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6(2), 126-143.
- Piercy, F. P., Laird, R. A., & Mohammed, Z.

- (1983). A Family Therapist Rating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1), 49-59.
- Rushforth, H. E. (2007).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 review of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7(5), 481-490.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 Development Approach*. Jossey-Bass Publishers.
- Storm, C., York, C., Vincent, R., McDowell, T., & Lewis, R. (1997). *The Postgraduate Competency Document (PGCD)*. In C. Storm & T. Todd (Eds.), *The reasonably complete systemic supervisor resource guide* (pp. 195-202).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tratton, P., Reibstein, J., Lask, J., Singh, R., & Asen, E. (2011). Competences and occupational standards for systemic family and couples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33(2), 123-143.
- Urbani, S., Smith, M., Maddux, C., Smaby, M., Torres-Rivera, E., & Crews, J. (2002). Skills-based training and counselor self-efficac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2(2), 92-106.
- Wiley, M. O., & Ray, P. B. (1986). Counseling supervision by developmental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439-445.

☐ 논문접수일 : 2022년 08월 07일
☐ 심사시작일 : 2022년 08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09월 01일

Review of the Counselor Development and Core Competency Research Focused on Family Counselors' Core Competencies

Cho, Eunsuk

Kwon, Hyeyoung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family counselor core competency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ounselor development and core competency (CC) was conducted. **Results:** Recent research on counselor development have shown more interest in the practical core skills of counselors, which were similar to the CC of counselors. In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the CC of mental health experts have increased as the need for quality mental health services and outcome-based education has emerged. AAMFT's CC was developed in 2004 and was followed by the UK's and Taiwan's efforts while Korea's efforts in this field are still limited. In the case of Korea, the research on the CC of individual counselors has been conducted more broadly as, compared to research on the CC of family counselor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CC of family counselors can be utilized more prominently in counselor education, training, evaluation, and standardized qualification process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discussions begin within the profess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CC of family counselors in Korea.

Keywords: *counselor/family counselor development, counselor/family counselor core competencies*